

봄 건너 뛴 여름...5~6월도 무더위 지속

기온, 평년보다 다소 높아
6월 기온 변화 크고 잦은 비
7월 게릴라 폭우 주의보

기온이 높고, 7월 후반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광주·전남의 올 4월 기온은 지난 22일 이래적으로 최고 기온이 28.2도까지 상승하는 등 일시적인 고온현상을 보였다.
기상청은 5월 초순에도 광주·전남은 이 동성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평균기온도 평년(17.2~17.6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6월에는 상층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 변

화가 크고,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강수량은 평년(152.7~230.0mm)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평균기온은 평년(21.1~21.5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7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은 평년(24.2~25.2도)보다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213.9~300.1mm)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기상 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73년부터 5~7월의 기온상승이 해마다

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5월은 1973년 이후 지난 46년간 1.3도 가까이 기온이 상승했으며, 7월의 경우 최근 10년간 1.9도나 올랐다. 반면 강수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7월의 경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한 소나기성 강수가 내릴 때가 있다"면서 "지역간 강수량 차가 매우 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침수피해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세계 책의 날...책나눔행사 세계 책의 날인 23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로비에서 열린 책나눔행사에서 직원들이 책을 대어 하러온 주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운암도서관이 지역민의 독서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교육 지원 통합정보 한눈에 광주 서구 '하이 에듀넷' 개설

광주시 서구가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교육 지원 통합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서구 하이 에듀넷'을 개설했다.
23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 하이 에듀넷은 부모교육 및 학생교육 안내 및 신청 접수, 각종 교육지원사업 자료 등 각종 정보를 학교·학부모·학생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계획했다.
질높은(High) 교육(Education) 정보 제공이라는 뜻의 '서구 하이 에듀넷'은 서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코너란에 신설됐다. 홈페이지에는 하이에듀넷 소개, 부모교육, 학생교육, 진로정보, 교육지원사업, 알림마당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콘텐츠를 확충해 우리지역 교육지원 정보 및 자료의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교조 전남지부 에너지 특목고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3일 "전남도교육청이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인 가정 '전남 IT·에너지 특목고'는 소수 학생을 위한 특권교육(시설)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나주에는 전남과학고가 운영 중이고, 전남도 교육청에는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며, 매년 3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기관을 내릴 있게 운영하는 게 영재교육을 진정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도교육청은 12학급 180명 규모에 총 시설비 400억원, 연간 운영비 50억원이라는 막대한 현금이 투입되는 고교 설립 계획을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모든 유치원 내년부터 '처음학교로' 통해 원생 모집

정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시의회 '의무화 조례안' 제정
내년부터 광주의 모든 유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서 원생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원생 모집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생 모집 시기·규모·교육비(원비)' 등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원서 접수부터 합격 확인까지 윈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광주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2020학년도 광주 공립 유치원 원생 선발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매년 인원과 지원 횟수, 선발 시기, 절차 등을 담은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했다. 유치원이 원생 선발시 처음학교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교육

오늘의 날씨 **해맑음** 05:50 **달맑음** --:--
해진 19:12 **달집** 09:23

출근길 우산 준비하세요
아침까지 비오다 잠시 그치고 밤에 다시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온뒤 맑음	17/20	보성	비온뒤 맑음	15/20
목포	흐린뒤 맑음	15/18	순천	비온뒤 맑음	16/22
여수	비온뒤 맑음	16/19	영광	비온뒤 맑음	15/19
나주	비온뒤 맑음	16/20	진도	흐린뒤 맑음	13/19
완도	흐린뒤 맑음	15/19	진주	비	16/21
구례	흐리고 비	15/22	군산	비온뒤 맑음	16/20
강진	흐린뒤 맑음	15/19	남원	비	15/21
해남	흐린뒤 맑음	14/19	흑산도	흐린뒤 맑음	12/16
장성	비온뒤 맑음	15/20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5	서~북서	0.5~1.0
남부 먼바다	남~남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2.0	남서~서	0.5~1.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남~남서	1.5~3.0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남서	1.5~2.5	서~북서	1.5~2.5

◇생활지수

보통	보통
낮음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7	05:33
	22:35	17:25
여수	06:06	00:02
	17:53	11:57

◇주간 날씨

25(목)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5/1(수)
☁	☁	☀	☁	☁	☀	☀
15/20	10/18	9/21	10/21	13/20	13/22	12/22

조선대 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2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2019년체육·예술 교육기부 거점대학 사업'의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조선대는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과 체육대학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과, 특수교육과, 공연예술무용과, 스포츠산업학과, 체육학과, 미술대학 디자인공학과가 참여해 특수학교, 소외지역학교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전라-제주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향후 8개월간 1억 3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부사업을 펼치게 됐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휴대용 부탄가스·화목보일러 안전기준 개선

화재사고가 잦은 화목보일러와 휴대용 부탄가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제8회 안전기준 심의회를 열어 부탄가스 캔과 화목보일러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캔의 경우 파열 방지 안전장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5년(2014~2018년) 부탄가스 캔 파열로 모두 10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35명 등 모두 1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화목보일러도 최근 5년간 화재 2006건의 원인이 돼 사망 2명·부상 47명 등 모두 4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연합뉴스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수원, 깨끗한 에너지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